



실로암 한인 침례 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SBC)

June 07, 2026, 10:30 a.m.

Ordinary Times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78@gmail.com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www.siloamkbc.org

예배 순서 WORSHIP ORDER

예배 인도자 Presi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 인도자 Presider

예배 기도 Invocation..... 인도자 Presider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393 오 신실하신 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H369 죄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C1244 주님께 드려요 Surrender Everything to the Lord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th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뒤돌아보기 Time to Reflect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다같이 All Together

마태복음 Matthew 9:9-13, 18-26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오직 믿음 Only Faith

III 화답 Response

성찬식 The Holy Communion다같이 All Together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임시 신도 사무 총회 2026년 6월 21일

- 친교후 예배 장소 이전 안건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입니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 자녀들을 위하여
- 여행하는 분들을 위하여
- 권세자들을 위하여

THE FIRST LESSON 창세기 GENESIS 12:1-9

-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 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 6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 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 8 거기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더니
- 9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시편 PSALM 33:1-12

- 1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 2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 3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 4 여호와와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 5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며 세상에는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총만하도다
- 6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 7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 8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 9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 10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 11 여호와와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 12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 13 아브라함이냐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 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 15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 16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 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 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 22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 23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 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쫓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본문 함께 살펴보기

로마서 4 장 13-25 절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당시 유대주의적 배경을 가진 이들은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 그리고 할례를 받기 전부터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음을 역설하며 구원의 보편성과 은혜성을 강조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백 세나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 Layout 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인간적인 절망과 육체적 한계라는 현실적인 불가능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 믿음이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자신의 삶 전체를 전적으로 맡기는 신뢰임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의롭다 하심이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 역시

동일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복음의 핵심 선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증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믿음의 주제들

본문에서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는 신학적 주제는 '율법과 행위를 뛰어넘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만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한계로 인해 결국 진노를 이루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에 근거함으로써 도리어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은혜'에 속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특정 민족이나 고유한 종교적 의무를 이행한 자들에게 갇히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보장되는 확실한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산 능력이 완전히 끝난 상태, 즉 의학적·인간적 관점에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오직 창조자의 권능을 가진 분만이 성취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창조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며, 이 믿음이 결국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음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의롭다 하심(칭의)'입니다. 25 절의 선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치러진 대속적 희생이었으며,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음을 공포하는 법정적 확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청산했다면,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승리의 증거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불가능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완전한 의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돌아보기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조건과 성과 중심의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증명해 내고, 어떤 자격을 갖추었으며,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가치를 매깁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은연중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침투하여,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라는 영적 율법주의로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러한 영적 피로감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은 우리의 종교적 성과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처하는 순간들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위기, 깨어진 관계, 영적인 침체, 혹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치 우리의 상황이 아브라함의 몸처럼 '죽은 것과 같은'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눈앞의 불가능한 환경과 메마른 조건들을 목상하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불가능한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진 현재적 권능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박물관 속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의롭다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 매일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영적 자유함을 누리야 합니다. 내 연약함에 집중하기를 멈추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를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기 위한 질문들

1.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한계와 비관적인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동시에 신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태도를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누어 보세요.
2.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에 속하게" 된다고 말합니다(16 절). 내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진 우리가,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누리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3. 본문 25 절은 예수가 "우리 범 죄한 것 때문에 내어쫓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죄책감이나 정죄감, 혹은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는 데 어떻게 실질적인 힘과 위로가 되는지 나누어 주세요.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

월요일: [약속의 말씀 붙들기] 오늘 하루 동안 나의 감정이나 형편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먼저 묵상합니다. 로마서 4 장 21 절("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을 세 번 이상 소리 내어 읽고 암송하며,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깁니다.

화요일: [죽은 생각 몰아내기] 내 삶에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미 끝났다'라거나 '불가능하다'고 치부해 버린 영역(관계, 재정, 영적 상태 등)이 무엇인지 적어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수요일: [조건 없는 은혜 감사하기] 행위 중심의 태도를 내려놓는 날입니다. 오늘은 무언가 영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묵상하며 5 분간 침묵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목요일: [믿음으로 영광 돌리기]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시간을 가집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소리 내어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금요일: [부활의 확산 가운데 걷기]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도 역사함을 선포합니다. 나를 정죄하는 죄책감이나 과거의 실패가 떠오를 때마다, 로마서 4장 25 절을 선포하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마무리 묵상과 공동의 기도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거룩한 구원의 약속 안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눈앞의 불가능한 현실과 자신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 또한 메마른 환경이 아닌 오직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고단함과 절망의 순간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GOSPEL 마태복음 MATTHEW 9:9-13, 18-26

9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0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9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20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겹옷 가를 만지니

21 이는 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23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24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25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26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